

나이가 들어서 근력이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근력 감소가 항상 불가항력적인 현상은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척추관 협착에 의한 하지 근력 감소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진행을 막거나 회복할 수 있다. 특히, 척추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가 쉽게 접근 가능하고, 척추 수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의료 환경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근위약에서 근육 질환의 가능성은 놓치기 쉽다. 임상적 의심이 쉽지 않고 검사가 침습적이거나 많은 비용을 들게 되며, 치료 방법 또한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본 증례에서는, 척추의 퇴행성 질환과 함께 근육 질환이 의심되는 사례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고령에서 진행되는 근위약도 척추의 퇴행에 의하거나 생리적 노화 과정이 아니라, 기저의 근육 병리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제안하고 한다.